

보살의 길

2007년 가을호 제31호



2007년 10월 12일 하반기 나들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9년 동안 모셨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



하 미 숙
(생활지도원)

1999년 입사해 9년이 임박해 간다.

어느새 세월이 이 만큼이나 흘렀는지...

열심히만 하면 되겠거니 하며 힘든 줄도 모르게 바삐 움직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정들었던 어르신들도 한분 두분 하늘나라로, 다른 곳으로 전원되어 가시고

남은 어르신들도 많이 노쇠하여 지셨다.

나도 노년층 계열에 임박해지면 과거 짧음의 성급함이 어르신들을 힘들게

했던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된다.

한편으로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자연현상에 이것저것 다 힘들어 하시는 어르

신들을 이해하면서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 지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 마다

세월의 연륜이 다 알차게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듈다.

훗날의 거울을 들여다 보듯 어르신들을 한분 한분 볼 때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게 된다.

예쁘게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날까지 재미있게 보람

있게 시간을 보냈으며 하는 바램이다. 12

봉숭아 물들이기

-2007년 8월 봉사활동 후기-



한정옥
(우담바라 서울 지역장)

토요일 조계사 다라니 철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 예불 참석하고, 100일 기도 후다닥 마치고 귀가하여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허겁지겁 나와 양로원을 향해 출발~
봉숭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아주영 법우님 가족 덕분에 다량의 봉숭아를 구입할 수 있어 한시름 놓았다. 전에는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화분에 봉숭아 천지였는데, 요새는 다들 봉숭아를 심지않는지 눈에 뜨이지를 않는다.

이번 달에는 남미영 법우도 어린이 법회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고영수 법우는 얼굴을 다쳐서 병원에 간다고 오전에 연락이 왔다. 이쁜 얼굴에 흠집 생겨서 시집 못가면 안되는데…

양로원에 도착하니 아주영 법우님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 봉숭아를 한 봉지 가득 챙겨 오고, 방망이에 절구통까지 두개씩 준비하고, 백반에 자른 비닐, 실까지 최순이 법우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오셨다. 매번 미안한 마음이지만 너무큰 도움이 되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잠시 후에 도착한 황정희 법우와 함께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입재예불을 드린 후 2층으로 올라갔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아주영 법우와 석준이가 봉숭아꽃과 잎을 백반과 함께 절구통에 넣어 찧기 시작하고, 나머지 인원은 할머니들을 모시고 손톱위에 정성스레 봉숭아 찧은걸 올리고 비닐로 감싼 후 실로 마무리를 한다. 할머니들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좋아라 하신다. 할머니들 20여분에게 봉숭아물을 들여 드리고, 할아버지 한분께도 해드렸다. 미안스럽게도 할머니들이 고맙다며 야쿠르트며 콜라, 과자를 꺼내다 주신다. 할머니들 모두 해드리고 3층 할아버지들에게 가니 모두들 거부하신다. 아무래도 그런건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목욕을 마친 할머니 한분께 마지막 봉숭아물을 들여 드리니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봉숭아물을 들이면 치매 예방에 좋다며, 오늘 기분이 최고라 하신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그렇게 까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던지 마무리를 하고 모두 모이시라 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와 정리하고, 회비 각출하고, 다음달 봉사내용 잠깐 상의하고 회향 법회로 마무리… 다음달엔 김치전, 해물전 붙여서 막걸리와 함께 파티를 하기로 했다.

모두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



어르신들~ 색칠하시려 오세요.

민경숙, 이정순 (색칠자원봉사자)

얼굴에 놓여있는 수많은 주름을 보며
 그동안 자식들에게 한 없이 베풀어만 주신 넓으신 가슴을 보며
 소리 없는 부끄러움이 넘쳐흘러요.
 하나하나 색칠을 하여 그림이 완성되어지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로에게 격려와 배려의 마음을 보여 주실 때마다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 왔어요.
 여원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면 이젠 됐다 하시며 사양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끝없는 사랑이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해요.
 조그만 마음으로 봉사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들을 너무도 환하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
 저희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혜명한 마당

재해예방 교육



| 노인기 재해예방교육 |

8월 23일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받으며 직원 모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송편 만들기 |

9월 20일 추석을 맞아 맛있는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오순도순 둘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만든 송편은 사랑이 담겨 더욱 맛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 외부공연 |

매월 1회 생신잔치 후 다양한 외부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8월은 병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셔서 인형극을 해주셨습니다. 활기차게 당신 일을 하시며 생활하는 이용시설어르신들을 보며 우리어르신들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하세요.



| 쫓아먹기 |

주 2회 일반 어르신과 요보호어른들을 나눠 종이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어렵다고 말씀은 하지만 척척 만들어 내시는 어른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쁜 것 많이 만들어 양로원을 아쁘게 꾸며주세요~



| 자전거체조 |

양로원은 어르신들이 몰아 가시면 3일장을 합니다. 2월째 되는 날은 양로원에 1층에 있는 법당에서 원장님 직접 영가법회를 해주십니다. 어르신들의 극락왕생을 바랍니다.



| 치매기 가을 나들이 |

10월 12일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로 용인에 버랜드로 다녀왔습니다. 소풍철로 학생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물개쇼, 사파리, 리프트, 놀이기구 등 우리어르신들 처음보는 재미나 볼거리로 5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는 모르게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 말고침색작 |

주 1회 색칠자원봉사자 팀이 오셔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신나게 진행을 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의 참석률이 제일 좋습니다. 늘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색칠팀에 감사드립니다.



| 치매공연 |

시흥중학교 학생들이 공연봉사를 나왔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양로원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으며 입소어른들도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 함께 하시고자 노력합니다.



| 우담바라봉사 |

월 1회 늘 새로운 봉사내용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우담바라봉사팀이 8월엔 스윙댄스, 기타연주, 초등학생의 귀여운 댄스 등의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담바라팀 ~ 늘 즐거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혜명동정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상 생활이 가능한 노인
- 입소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 방문 상담후 입소결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근 (현성 큰스님)
- 정원 : 64명 (남: 28명/ 여: 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어르신입소현황

| | 계 | 65~69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이상 |
|---|----|-------|-------|-------|-------|-------|-------|------|
| 계 | 63 | 7 | 9 | 11 | 15 | 15 | 4 | 2 |
| 남 | 27 | 6 | 7 | 6 | 6 | 2 | · | · |
| 여 | 36 | 1 | 2 | 5 | 9 | 13 | 4 | 2 |

▶ 직원현황

| 구분 | 계 | 시설장 | 사무장 | 관리과장 | 간호사 | 영양사 | 서무 | 생활지도원 | 위생원 | 식당 | 사회복지사 |
|----|----|-----|-----|------|-----|-----|----|-------|-----|----|-------|
| 남 | 4 | 1 | 1 | 1 | | | | 1 | | | |
| 여 | 12 | | | | 1 | 1 | 1 | 4 | 1 | 3 | 1 |
| 인원 | 16 | 1 | 1 | 1 | 1 | 1 | 1 | 5 | 1 | 3 | 1 |

자원봉사자

2007년 7월 1일 ~ 2007년 9월 30일

공경진, 장영숙, 김아영, 신경숙, 김정아(영어),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김향신, 박은주, 임진빈, 민경숙, 윤숙녀, 이양수, 안정희(립그립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 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김미경, 권연숙(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룰리치료), 대한적십자사시흥동회원님들,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경기민요), 최승묵, 김병오, 김용기, 박정근, 양희충, 유문식, 김진환(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 김하늘(차밍댄스), 북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북향,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찬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실, 윤명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 김순옥(식당봉사),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전광원(목욕봉사), 조장현, 송백섭, 김운봉, 김민석, 이교환, 조영관(기업은행강서지역), 윤기봉, 한경열, 한성우, 박병훈, 김희정, 김소희, 최그림, 김윤경, 이민애, 김문기(행복병원), 김도연(이야기시간), 홍먹신, 채명훈, 장진하, 위진영, 신수진, 김도진, 강선권, 송한별, 송예솔, 박가현, 박지현, 김혜미, 권지현, 유재윤, 신수정, 신수진, 홍은지, 권지연, 박윤미, 이원근(금강정사학생회)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 물 품 후 원

안양교도소, SBS, 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 문백초등학교, 현성정사, 김안수, 금천푸드뱅크, 이윤분, 혜명회(찬불가), 백련사, 김성현, 혜명보육원, 봉원사, 독지가, 대우건설, 관음사, 금천경찰서, 최옥금, 협진3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천보살, 구의회, 사랑의운동본부, 한독병원, 이제임, 강성원우유, 보라매법당, 보덕암

♥ 지 로 후 원

| | | | | | |
|------------|-------------|------------|------------|------------|------------|
| 이정호 15,000 | 장영애 10,000 | 구봉순 30,000 | 윤재순 90,000 | 나영균 30,000 | 은선사 30,000 |
| 이애자 40,000 | 현종스님 20,000 | 문금자 20,000 | 안정희 30,000 | 백승풍 20,000 | 박영옥 10,000 |

♥ 현 금 후 원

| | | | | |
|------------------|-------------------|----------------------|---------------|------------|
| 한국노인복지협의회 67,500 | 증권선물거래소 400,000 | 권기상 150,000 | 미래에셋생명 80,000 | |
| 최형기 30,000 | 김순옥 10,000 | 안효주 200,000 | 이복자 20,000 | 한진택 30,000 |
| 양보금 30,000 | 유규동 300,000 | 박혜정 300,000 | 김성현 360,000 | 신숙례 50,000 |
| 조원정 10,000 | 마희전 40,000 | 김명숙 50,000 | 이복자 30,000 | 조성한 20,000 |
| 안영옥 50,000 | 박성수 60,000 | 강윤호 200,000 | 이용규 200,000 | |
| 대림라이온스 300,000 | 서울시시정개발연구소 90,000 | 한국갑정원 300,000 | 박우영 30,000 | |
| 한국일보사 100,000 | 금천구청 20,000 | 한국청소년육성회금천지사 300,000 | 신웅섭 6,350,743 | |

♥♥♥ 늘 양로원을 잊지 않고 정성껏 후원금을 내주시는 후원자님, 어르신들의 생필품, 간식, 부식등 후원품을 가져다 주시는 후원자님, 또 하루 일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원봉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두루 건강하고 화목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령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 원 자 모 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활필품후원 – 랙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7655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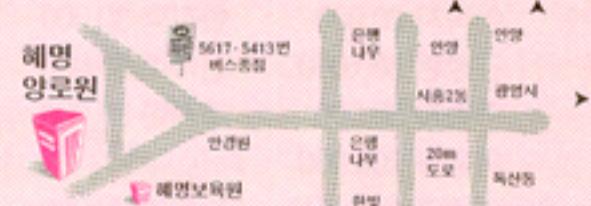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예명양로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 시흥역 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예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